

통계청, '포괄적 연금통계 개발' 연구용역 착수 ... 객관성·활용성 높인다

- 다양한 연금전문가 참여로 정확한 연금통계 작성방법 등 연구
- 통계청, 모든 연금데이터를 연계한 '연금통계 개발'... 금년 10월 결과 공표
-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및 전국민 노후소득보장 정책 수립 등 뒷받침 기대

- 통계청(청장 한훈)이 연금개혁 논의를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'포괄적 연금통계 개발' 연구용역을 시작하였다.
 - 통계청은 오늘 오후 서울역 비즈센터에서 「포괄적 연금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성 제고방안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.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8개월간 수행하며, 다양한 분야의 연금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한다.
 - 통계청이 개발 중인 연금통계는 기초연금, 국민연금,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중심으로 연계하여,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·수급 및 미수급 사각지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금년 10월 공표할 예정이다.
- 본 연구사업은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의 작성방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, 정책부처 등에서의 통계 활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- 이를 위해, 현재 소관 부처와 기관별로 관리되는 다양한 연금 데이터를 연계하고 표준화하는 방법론과 함께, 세계 각국의 연금통계를 검토하여 정책맞춤형 지표 선정 및 민간에서의 활용성 확대 방안 등도 연구할 예정이다.
- 특히, 이번 연구에는 공·사적 연금제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개별 연금자료와 사회보장행정데이터 이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.

- 오늘 보고회에서 한훈 통계청장은 “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및 전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 수립을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 - 또한, “이번 연구사업에는 많은 분야의 연금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정확하고 활용성 높은 연금통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며, 통계청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통계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말했다.

【붙임 1】 포괄적 연금통계 착수보고회 개요

【붙임 2】 사진 자료

담당 부서	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	책임자	과 장	차진숙 (042-481-3675)
		담당자	사무관	박인천 (042-481-6991) 전용수 (042-481-3643)

붙임1

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요

□ 연구용역 개요

- (사업내용)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
- (연구진)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(연구원 11명, 연구보조원 4명)
- (연구기간) '23. 4. 19. ~ 12. 15.(8개월)

□ 착수보고회 개요

- 일시: '23. 5. 12.(금) 14:00
- 장소: 서울역 비즈센터 2동
- 참석자: 통계청장, 통계데이터허브국장, 행정통계과장 및 연구진
- 주요내용
 -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연구용역 세부 사업수행계획 설명
 -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
- 진행 순서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~14:20	개회, 통계청장 인사말씀, 사업소개	통계청
14:20~15:20	세부 수행계획 및 내용 보고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
15:20~16:00	질의응답 및 의견수렴, 마무리	통계청

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의 기대효과

현재

◎ 개별 부처 및 기관이 각자 관리·감독 → 전체 연금소득 파악이 어려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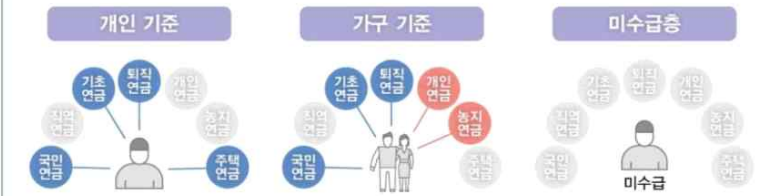
연금 통계 개발

◎ 통계청의 통계등록부기준으로 모든 공·사적 연금자료를 연계하여 작성



개발 후

◎ 개인·가구별 연금수급 전체현황과 미수급층 등 사각지대의 전체적·입체적 파악



◎ 다양하고 입체적 특성별 분석



◎ 포괄적 연금통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고품질의 노후소득보장 및 복지정책 추진 가능